

# “아시안게임 위해 ‘직진’입니다”

日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앞둔 나지완

## 국가대표 발탁·팀 우승 위해 군복무 미뤄

“무모하다”는 이들에게 KIA 나지완은 ‘최선을 다한 후회 없는 도전이다’고 말한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나지완이 7번째 스프링캠프 짐을 꾸리고 있다. 15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되는 KIA 야수진들의 스프링 캠프. 3월4일까지 계속될 49일간의 대장정에 나지완도 함께하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지완은 지금쯤 군복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늦어질 대로 늦어진 군복무. 지난해에도 입대를 포기하고 시즌에 들어갔던 터다.

지난해에는 우승에 대한 생각이 나지완의 발목을 잡았다. 각별한 동생 윤석민과 친구 이용규가 FA를 앞두고 있었고 김주찬의 가세로 팀 전력이 탄탄했다. ‘해보자’는 선수단의 의지도 강했던 만큼 다시 한번 정든 이들과 우승을 이뤄보고 싶었다. 그 목표가 쓰디쓴 실패로 끝났지만 나지완은 중심타선에서 고군분투하며 팀의 자존심을 지킨 4번 타자였다.

올 시즌에는 눈 앞에 아시안게임이라는 크나큰 목표가 있다. 태극마크를 달아보고 싶다는 꿈이 나지완을 다시 고민하게 했다.

나지완은 “군대를 다녀오면 2009년 우승에 함께했던 이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승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군복무를 미뤘다”며 “입대가 늦어질 대로 늦어졌고 이왕 이렇게 된 것 국가대표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팀에 뽑히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소원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

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았다. 해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 내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 싶다”고 밝혔다. 막상 군복무를 미루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할리 없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요즘 잠을 설치고 있다. 나지완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자기최면을 걸고는 있지만 요즘 잠을 잘 못자고 있다. 보기와 달리 예민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기는 많은 것 같다”며 “올 시즌이 어떻게 끝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많고 마음이 복잡하다. 팀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시즌은 앞으로의 야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르는 터닝 포인트다. 특별한 해, 새해 다짐도 특별했다. 조부모님 산소에 인사를 다녀온 나지완은 무등산에 올라 마음도 다 잡았다.

나지완은 “조상님을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서 따로 산소를 갔다왔다”고 웃으며 “막상 훈련이 시작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합령에서 배팅 훈련을 해봤는데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았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릴 생각이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난 시즌을 보내면서 야구가 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꾸준하게 팀의 중심타자로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무명의 ‘워커’ 벌써 2승

PGA투어 소니오픈 우승...최경주 20위

‘늦깎이’ 지미 워커(미국)가 2013-2014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560만 달러)에서 우승해 시즌 2승째를 올렸다.

워커는 13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이 골프장(파70·7044야드)에서 끝난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 버디만 7개를 골라내는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17언더파 263타를 친 워커는 크리스 커크(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전반에만 2타를 줄인 워커는 승부처인 15~17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말차 감치 달아났다. 특히 17번 홀(파3·194야드)에서 티샷을 핀 1.8m 옆에 붙인 뒤 갈끔하게 버디를 낚아 2위 그룹과의 격차를 3타로 벌리고 우승을 사실상 결정지었다.

워커를 2타차로 쫓던 커크는 첫날 이글을 잡아낸 마지막 18번 홀(파 5)에서 동타

를 노렸으나 워커로 날린 칩샷이 홀을 빗나 가면서 버디로 1타를 만회하는 데 그쳤다.

한국계 선수 중에서는 재미교포 케빈 나(31·타이틀리스트)가 가장 높은 8위에 자리했다.

케빈 나는 이날 버디 6개를 낚고 보기를 2개로 막아 4타를 줄여 최종 10언더파 270타를 적어냈다.

2008년 이 대회 챔피언인 최경주(44·SK텔레콤)는 최종일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타를 줄이는 저력을 뽐내며 9언더파 271타, 공동 20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첫날 7타를 줄이며 폭풍 버디 쇼를 벌인 배상문(28·캘러웨이)은 이후 사흘 연속 타수를 줄이지 못해 7언더파 273타, 공동 32위에 머물렀다.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활약하다가 초청 선수로 출전한 김형성(34)은 이날 4타를 잃어 최종 합계 2언더파 278타(공동 65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한국 야구를 말한다

KBO, 원로 야구인 32명 인터뷰 영상 제작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원로 야구인의 인터뷰를 통해 야구를 말한다.

KBO는 13일 원로 야구인 32명의 인터뷰를 담은 특별기획 ‘야구를 말한다’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한국야구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의 회고와 숨겨진 뒷 이야기 등을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하고 야구 박물관 사료로 후대에 남기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구본능 KBO 총재가 기획하고 제작 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지난 2011년부터 제작이 이뤄졌으며 해태와 삼성을 거쳐 10차례나 팀 우승을 이끈 김응용 한화 감독과 2009 WBC 준우승의 패거리를 이룬 김인식 KBO 규칙위원장, SK의 2000년대 전성기를 이끈 김성근 고양원더스 감독

등 프로야구 역대 명장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백인천, 김봉연, 김일권, 김재박, 박철순 등 프로야구 8~90년대를 빛낸 최고의 스타들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또 프로의 근간이 된 실업야구 시절 기업은행 초대감독인 김 고양중 감독, 전 대한야구협회장인 김종락 회장,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의 우승 주역인 어우홍 감독 등 원로 야구인 등 야구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총 32명의 인터뷰가 이뤄졌다.

영상은 13일 김응용 감독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매주 2명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KBO 홈페이지(www.korea\_baseball.com)와 YouTube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역사적 사료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아카이브센터와 함께 ‘KBO 영상 아카이브 센터’를 구축, 프로야구 경기·주요 기록·주요 인물 등을 영상으로 기록해 활용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

## 신종길, 역대 연봉대열

122% 인상...KIA, 최희섭 제외 계약률 98%

KIA 신종길이 역대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2014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중 내야수 최희섭을 제외한 44명과 재계약(계약율 97.8%)을 마쳤다.

지난 시즌 팀의 유일한 3할 타자로 이름을 올린 신종길은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오른(인상률 122.2%) 1억원에 사인을 하면서 14년차에 처음 역대 연봉자가 됐다. 외야수 나지완도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인상률 33.3%)이 오르며 처음 2억 고지를 밟았다.

좌완 임준섭은 2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140%의 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1억1000만원을 받았던 김진우가 1억3000만원으로 18.2% 인상됐으며, 양현종은 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33.3% 인상되면서 역대 대



열에 제합류했다. 8위라는 성적 속에 연봉 한파를 맞은 이들도 있다.

지난 시즌 4억 8000만원을 받았던 송은범이 1억 8000만원이 꺾인 3억원에 계약을 끝냈다. 서재응도 1억 5000만원이 꺾

인 2억원에 계약을 하면서 43%의 삭감률을 보였다. 포수 김상훈도 9000만원 삭감된 80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다.

‘꼬꼬마 키스톤’ 김선빈과 안치홍도 입단 후 처음으로 연봉 삭감자가 됐다. 이들은 나란히 5000만원이 삭감되면서 각각 1억3000만원과 1억5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맞춤 웨딩의 명소 신양파크호텔

2014년 신년 감사 웨딩 할인 축제

기간 | 2014년 2월~3월(2개월)

감사할인 특별메뉴 (200명 이상)

뷔페 ₩30,000원~

스테이크 ₩35,000원~ (세금별도)

기타혜택: 객실 2실 무료제공, 꽃길 무료제공, 폐백실 무료제공, 열음조각 무료제공, 음주류 50% 할인, 웨딩캐드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